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제1차 공동 심포지엄**

축사

2021.5.26.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도입부 인사

화창한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나라 금융 연구의 중추를 담당하는 한국 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산 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공동 심포지엄을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과 실물 간의 동반성장

저는 오래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못지 않게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의 동반 성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의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성숙해질수록 금융부문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산업 중심의 경제가 금융산업 중심의 경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경제는 카지노 경제를 가져오고 금융자산 가격의 거품을 조성합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절정에 도달한 것이 지난 2007-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는 금융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의 위기를 수반합니다. 2007-8년의 금융위기는 금융만의 위기가 아니라, 실물부문을 포함하는 경제위기였습니다. 매일같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는 증시에서, 증권투자자는 속전속결로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실물산업에서 나오는 '보잘 것 없는' 이익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James Tobin 교수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¹⁾

“학자에게는 아마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농본주의에 근거를 둔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다. 우수한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는 거리가 먼 금융활동으로, 다시 말해 사회적 생산성과는 비례하지 않는 수준의 높은 보상을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말이다. 나는 컴퓨터의 엄청난

1) 다음은 Tobin, James, "On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ystem," Lloyds Bank Review, 1984의 일부를 번역한 것으로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제5판, 2018, p.806에도 나와 있다. 문장의 일부는 다시 다듬었다.

위력이 이런 '증서경제(paper economy)'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케인즈가 오래 전 깨달았듯이, 금융수단이 갖는 유동성 및 양도가능성 (negotiability)의 이점을 누리는 대가로 우리가 극단적 투기의 촉진 - 이런 일은 근시안적이고 비효율적이다 - 이라는 비용을 치르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제의 지나친 금융화를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금융부문의 '자유방임'을 거두고, 금융이 실물부문의 발전을 돕는 금융중개업무를 기본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업은 공공성이 강한 준공공산업입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거래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금융의 빠른 변화의 경로를 다 알 수 없듯이, 금융전문가 자신도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금융 변화가 일어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유방임, 특히 금융의 자유방임은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신뢰 구축의 중요성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뉴욕에 월 스트리트가 있다면 런던에는 스레드니들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옛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 전면에는 라틴어로 "Dictum Meum Pactum"이란 문구가 보입니다. 영어로는 "My Word is My Bond", 즉 "나의 말은 나의 각서"란 뜻입니다. 금융은 철저한 신용과 금석같은 신의가 생명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금융시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신뢰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재벌 정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는 재벌 체제의 구축이나 유지 또는 승계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낀 재벌 쪽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 정부의 정책이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논란은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는 금융 규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학자들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학문의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과 금융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에는 이런 연구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기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멀리 보고 정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맺는말

오늘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이영섭 한국금융학회장님, 강경훈 한국금융정보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신 연구자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훌륭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